

李宜顯의 <更子燕行雜識>에 수록된 服飾研究

전혜숙

동아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상섬유학부 교수

1. 연구목적 및 방법

위 연구는 조선후기 肅宗46년(1720년) 從二品 禮曹參判을 지냈던 陶谷 李宜顯이 청에 燕行한 체험기 <更子燕行雜識>의 복식기록을 분석한 연구로서, 이 시기는 胡亂을 겪은 후 100여년이 지나 對明義理論과 反清的 北伐論이 여전히 절대적이며, 朝鮮中華主義의 고조로 우리문화가 최고라는 國粹主義가 팽배한 가운데, 淸朝는 제4대 강희제 통치 말기로 국내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안정을 이루고, 서양에서 들어온 학문과 기술로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다.

이의현은 예조참판, 대제학, 우의정, 영의정을 지낸 인물로서, 두 차례에 걸친 연행을 하는데 첫 번은 숙종48년 1720년에 <경자연행잡지>, 두 번째는 경종2년 1732년에 <임자연행잡지>가 있으며, 지나가는 곳마다 산천, 형승, 고적을 기록하고, 청인들의 음식, 의복, 상장 등의 제도에 대하여 한인과 청인의 제도를 상세하게 비교 기록하고 있다.

경자년 연행 당시 예조참판 직책으로 연행하는 이의현은 禮制에 박식하였다고 보므로, 의복제도에 관한 관찰기록 역시 다른 사람의 기록과 구별되어서 보다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록했을 것이라고 보며, 이의현의 연행록 중에서 복식만 발췌 분석하여 당시 청과 조선의 의복제도를 비교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결과

이의현은 文人(1669년 현종10-1745년 영조21)으로, 호는 陶谷, 본관은 용인에 좌의정을 지낸 李世白의 아들이고, 당대 문장과 서예에 유명한 농암 金昌協(1651-1708)과 문인으로서, 숙종20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검열, 설서, 정언, 교리, 부응교, 승지를 역임하고, 1720년 예조참판 재임시 동지사로서 청에 다녀 온 기록이 <경자연행잡지>이고, 뒤에 형조판서, 예조판서, 양관대제학, 우의정을 거쳐 판중추부사에 기용되어 1732년 청에 다녀 온 기록이 <임자연행잡지>이며, 1735년에는 영의정에 올랐다.

<경자연행잡지>의 복식기록을 보면, 漢人 秀才를 만나면 조선의 의관에 대하여 묻기도 하고, 북경에서는 청나라 관리들의 조복제도에 대하여는 모자, 정자, 복식의 보, 대, 피건 등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고, 이러한 복색들이 중화 제도는 아니라도 귀천과 품급이 뚜렷하여 문란하지 않다고 칭찬도 하고 있고, 중국내의 외국인의 복식과 평가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일반인들의 복식제도는 모자, 복식, 수식제도, 장식물, 신발, 버선과 옷을 입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기록하고, 상복제도에 관해서도 기록하고 있는데, 여자는 가난해도 비단을 입고, 노소를

막론하고 머리털을 묶어 상투를 만들어 검은 비단으로 싸서 이마에 玉版을 붙이고 분칠을 하고 꽃을 꽂으며, 남자의 胡帽와 갓옷(裘)재료는 貂皮, 염소, 양 등의 가죽을 쓰며, 개가죽은 쓰지 않는다고 하고, 털이 가죽으로 가도록 한다하고, 남녀 의복은 사치, 검소 막론하고 모두 검은 빛을 좋아하나, 漢人 여자들은 푸르고 붉은 바지를 입은 자가 많다고 기록하고 있다.

남녀 옷의 구조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바, 모두 옷깃이 없고, 겹옷이나 속옷에 옷고름이 없이 모두 조그만 단추를 달아서 옷을 벗을 때에는 용이하지 않다고 소개하고, 胡人이나 漢人을 막론하고 한결같이 모두 胡帽·胡服을 착용하며, 남자는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 鞋나 靴를 신되 布帛으로 만들되 가죽으로 만든 것이 없고 미투리나 쥘신도 없으나, 鳳凰城·瀋陽 사이에서는 더러 가죽 버선을 신었으며, 胡女는 전족을 하지 않고 어린아이들도 모두 버선을 신고 鞋나 靴를 신어서 다리를 내놓는 자가 없으며, 어른과 다름없는 옷과 호모를 써서, 얼굴로 어른 아이를 구별한다 하니 이는 조선의 복식제도가 어른과 아이가 다의 차이점이 있음에 비교하여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이의현의 <경자연행잡지>에는 다른 연행일기와 구별되게끔 청의 복식제도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으니, 이는 그가 예조참판의 신분으로 사행을 하고 있었던 입장에서 다른 기록자들이 볼 수 없었던 부분을 상세하게 관찰하였다고 보며, 청과 조선의 의관제도 비교를 통해서 18세기 초 양국의 복식제도의 실체를 알아 볼 수 있었다.